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요인 분석 및 전공실기성취도와 전체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최 진 호**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대학 재학생들이(N=195) 생각하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전공실기성취도와 전체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Academic Success Inventory For Music Majors(ASIMM)를 통해 측정, 분석해 보는 것이었다. 연구의 측정도구인 ASIMM은 교수, 동료집단, 타고난 환경, 개인성취능력, 학교 등 다섯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높은 내적일관성신뢰도가 확인되었다($\alpha=.90$). 본 연구 결과, 음악전공 대학생들은 스스로의 자신감, 성취욕구, 충분한 전공실기 연습, 시간관리 등 '개인성취능력'과 관련한 요인들을 학업성취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반면,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나 지능 등 '타고난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적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대학생의 전공실기성취도와 전체학업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두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r=.62,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음악대학생들이 실기와 전체학업성취 간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 주제어: 학업성취, 음악대학생, 음악교육, 대학 교과과정

차 례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 | | |
|-------------------------|-------------------------|
| 1. 연구대상 (Participants) | 2. 연구의 제한점 (Limitation) |
| 3. 연구절차 (Procedure) | 4. 검사도구 (Questionnaire) |
| 5. 결과분석 (Data Analysis) | |

IV. 연구 결과

V. 결론 및 제언

* 이 논문은 2012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전공강의전담교수(jhc0028@live.cau.ac.kr)

I. 서론

현재 한국의 대학사회는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2011년 9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곳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7곳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말로만 진행되어 왔던 부실대학의 퇴출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대학사회는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사회의 변화의 흐름은 음악대학에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음악대학들 중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대학들도 퇴출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이제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부실한 몇 개의 대학들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대학들에게 음악대학의 존재 가치와 함께 미래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악대학의 존재가치는 우수한 음악인의 양성에 있다. 그리고 우수한 음악인의 양성의 성공과 실패는 각 음악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좌우된다. 다시 말하면, 각 음악대학에 소속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 그 음악대학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어진다.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성별, 나이, 지능, 부모의 경제력과 교육수준을 포함한 타고난 배경(박영신 외, 2004; Eysenck, 1971; Jensen, 1969), 가르치는 교사와 교육시설을 포함한 학교의 수준(김경근, 1996),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노력과 학습전략, 교과에 대한 흥미를 포함하는 개인적 성취능력(김희수, 2004)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일반적인 학업성취요인들은 음악대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전문 음악연주자를 목적으로 하는 음악대학생들의 학업환경은 일반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실기라는 특수한 성격의 학업이 병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게다가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특정 전공보다는 일반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이며, 기존의 학업성취도의

측정이 실제 학업성적과 학부모의 수입 및 학력과의 관계 등 객관적으로 나타난 외적조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음악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요약하면,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는 연주와 연관된 특수한 학업환경에 놓여있는 음악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와는 다른 접근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연관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음악대학생들, 특히 한국의 음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된 연구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다. 더구나 현재 대학사회에서 학업성취요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객관적으로 나타난 학업성적에 집중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음악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음악전공생들을 대상으로(N=195) 음악대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Academic Success Inventory For Music Majors(ASIMM)를 통해 측정, 분석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ASIMM은 기존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수, 동료집단, 타고난 환경, 개인성취능력, 학교 등 다섯 가지요인으로 구분하여, 어떤 요인들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가 알아보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음악전공생들이 생각하는 실기 성적과 전체학업성적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인들이 생각하는 전체학업등위(학업성취)와 실기등위(연주성취)를 스스로 적도록 하여,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보았다.

연구 문제

- 연구문제 1. 음악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음악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전체학업등위)와 연주성취(실기등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대학교육의 성공과 실패는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학업성취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김경근(1996)은 넓은 의미에서 학업성취는 학교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학습결과를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는 지식이나 기능적 측면의 인지적 영역만이 아니라, 태도 등 정의적 영역의 결과까지 포함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업성취의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교과과정을 제대로 마칠 수 있는가를 예견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사회적 성공을 가늠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연구결과들의 의하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 몇 가지 요인으로 구분해 보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교의 시설, 위치, 재정, 가르치는 교사의 자질 및 경력 등 학교와 연관된 요인들(김경근, 1996; Jencks, et. al, 1971; Coleman, 1961)과 부모의 학력과 사회적 위치(김영화, 1993; 박영신 외, 2004), 또는 지능(Eysenck, 1971; Jensen, 1969)과 같이 타고난 환경과 연관된 요소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성취동기(박영신 외, 2004; 김희수, 2004)나 학습전략(이경아 외, 2004) 등 개인성취능력과 연관된 요인들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학교와 연관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내용과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와 태도는 학교의 분위기와 문화를 조성하게 되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실제로 교사가 학생에게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를 보이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senthal & Jacobson, 1966).

학교와 연관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과 위치, 그리고 재정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김경근, 1996). 실제로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도시인지 농촌인지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이종재 외, 1978). 심지어 같은 서울지역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학력차가 존재한다. 이처럼 재정이 풍부하고 교육적 환경이 우세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그렇지 못한 학교들 간에 학교 시설을 포함한 학업환경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부모의 학력과 사회적 위치, 그리고 이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지능과 환경이다.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부모의 학력, 특히 아버지의 학력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근, 1996; 김영화, 1993; 박영신 외, 2004; Coleman, 1961). 김영화(1993)에 의하면,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기대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올라간다고 하였으며, 박영신과 연구자들(2004)은 부모의 사회적 지원과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가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타고난 배경 중 부모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학습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역시 유전적으로 타고난 지능이다(김경근, 1996; Eysenck, 1971). 하지만 연구자들은 지능에 대해 타고난 지적능력뿐만 아니라, 후천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요소라고 말한다(Jensen, 1969).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학업성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는 역시 개개인의 성취동기나 학습전략들을 포함한 개인성취능력과 관련된 요인들이다. 실제로 연구결과들을 보면, 자기조절 학습 효능감

및 성취동기가 가장 강력한 학업성취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김소희, 한정선, 2001; 김희수, 2004; 박영신 외, 2004). 특히 김희수(2004)는 자아 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 중요한 학업성취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 같은 연구에서 자신감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결과들은 일반적인 학업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었다. 하지만 앞에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음악대학생들은 일반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연주(실기)라는 전혀 다른 학업환경에 놓여있다. 이러한 특수한 학업상황에 놓여있는 음악대학생들의 학업성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일반적인 학업성취에 관한 내용 외에 연주와 관련한 음악대학생들의 음악적 성취요인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음악대학생들의 학업성취요인과 연주성취에 관한 연구, 특히 한국음악대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기에 음악대학생들의 학업환경과 연관된 연구결과들을 이론적 배경으로 정리해 보았다.

음악대학생들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연주능력의 향상이다. 버트와 밀스(Burt & Mills, 2006)는 13명의 음악 전공생들을 조사한 결과 학교에 입학한 후 첫 번째 연주 결과가 자신들의 음악대학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음악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연주에 대한 좋은 평가를 위해 연주능력향상에 최우선순위를 두며, 연주 능력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레슨과 실기 교수와의 관계를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Kostaka, 2002; Teachout, 2001). 이와 비슷하게 우디(Woody, 2000) 또한 46명의 음악대학생들을 연구한 결과, 개인레슨이 어떤 다른 수업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요약하면, 음악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기능력의 향상이며, 그러기 위해 개인레슨과 실기교수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악대학생들에게 연주가 가장 우선시 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은 역시 향상되지 않는 연주능력의 부진함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다. 듀스와 윌리엄스(Dews

& Williams, 1989)는 201명의 음악대학생들을 연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음악대학생들 중에는 연주 공포증을 경험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Williams & Thompson, 2006). 결국 이러한 점에서 아즈무스(Asmus, 1986)는 음악적 성취의 성공과 실패는 이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과 자신감 등 내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

한국의 음악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가운데, 최진호(Choi, 2009)는 미국 내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동아시아 유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재학하고 있는 미국 음악대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 연구결과, 미국 내 한국유학생을 포함한 동아시아 학생들은 전공 교수와의 좋은 관계와 긍정적인 피드백이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업성취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작문능력이라고 밝힌 선행 연구결과(Green, 2007)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음악 대학생만의 특수한 학업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교수, 동료집단, 타고난 환경, 개인성취능력, 학교 등 다섯 가지 요인을 구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검사도구인 Academic Success Inventory For Music Majors(ASIMM)를 제작하였다. ASIMM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과 내용들은 연구방법의 검사 도구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C, D, H, K, S, S, Y 7개 대학과, 수도권을

포함하여 경기도에 위치한 D, K, K, S, S 5개 대학 등, 총 12개 대학교의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195명(n=195)의 음악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의 학업성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 학업성취와 연주성취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측정해 보았다. 참가자들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자가 162명(83%)으로 남자(n=28, 14%)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5명(3%)은 성별을 적지 않았다.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21.88(SD=1.53)세로 가장 어린 나이는 19세였고 가장 많은 나이는 28세였다. 참가자들의 학부전공을 살펴보면, 피아노 전공이 117명(6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곡 전공이 34명(17%), 기악이 25명(13%), 성악 14명(7%) 순으로 나타났고, 5명(3%)은 전공을 적지 않았다. 참가자들의 학년은 2학년이 57명(29%)으로 가장 많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1학년 53명(27%), 4학년 41명(21%), 3학년 36명(19%) 순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8명(4%)은 학년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 참가한 음악대학생들의 출신 고교를 살펴본 결과, 예술 고등학교 출신이 93명(48%)으로 일반 고등학교 출신(n=89; 46%)보다 많았으며, 6명(3%)이 그 외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표시하였다. 반면, 7명(4%)은 출신 고등학교를 적지 않았다. 참가자들의 음악교육을 처음 시작한 나이는 평균 9.20세(SD=4.46)였으며, 가장 어린 나이는 2세였고 가장 많은 나이는 19세였다. 학업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학비 등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177명(77%)이 부모의 지원이라고 밝혔으며, 장학금(n=17; 9%), 아르바이트(n=8; 4%)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12명(6%)의 학생이 장학금과 아르바이트 등 부모 이외에 여러 가지를 합쳐 학비조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역시 부모들의 지원이 학비 조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학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47명(24%)의 학생들만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답한 반면, 70%의 학생들이 다소 있다(n=96; 49%), 많이 있다(n=30; 15%), 매우 어렵다(n=12; 6%)라고 답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조달의 가장 중요한 수단에 대한 질문에 대해 7명(3%)은 답을 하지 않

았으며, 경제적 어려움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10명(5%)은 답을 하지 않았다. 설문조사는 12개 대학의 학생들의 자발적인 연구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에 대한 절차는 연구절차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12개 대학에 소속된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음악전공생들(N=195)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에 대한 요인을 조사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이 연구의 대상이 된 학교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다른 교육상황에서의 일반화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이 연구의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기에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12개 대학 음악전공생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학업성취와 연주성취를 스스로 적도록 하였기에, 실제 성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음악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음악전공학생들이 생각하는 전체학업성적과 실기성적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연구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질적 · 양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고 상호보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병렬적/동시적 통합 방법설계(Simultaneous Mixed Methods Design)” (성태제, 2010, p.35) 중 주-부 패러다임 혼합 방식(Dominant-less Dominant Mixed Method Design)을 사용하여 양적연구 자료가 내용의 주가 되게 하고, 질적 자료

는 부가 되도록 하여 양적연구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지원자 표집방법(Volunte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지원자 표집 방법은 “연구 참여를 거부하는 연구대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법적, 윤리적 문제 때문에 연구대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구” (성태제, 2003, p. 105)인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연구대상을 추출하기 위하여, 먼저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4년제 종합대학 중 음악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을 선별하여, 각 음악대학에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중 본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12개 대학(국, 공립, 사립대학 모두 포함)들이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위의 12개 학교가 선정된 후, 각 대학에 설문지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였고, 각 음악대학은 설문지를 출력하여 음악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결과 195명(n=195)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담당교수 또는 조교가 참가자들이 제출한 설문지를 모아 다시 연구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4. 검사도구(Questionnaire)

본 연구의 검사도구인 Academic Success Inventory For Music Majors (ASIMM)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음악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수(6문항), 동료집단(5문항), 타고난 환경(4문항), 개인성취능력(8문항), 학교(7문항) 등 다섯 가지 요인을 구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총 30개의 문항을 5단계 Likert 척도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제작되었다.

검사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를 위해 3명의 전문가를 통해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Check)를 측정하였으며, 필드테스트와 내적일관성인

되도(A Cronbach's alpha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coefficient)를 측정 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내적 신뢰도($\alpha=.90$)가 확립되어 음악대학생들의 학업성취요인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음악대학생들의 학업성취요인 검사도구(ASIMM)의 문항구성 및 주요내용

요인	검사문항의 주요내용(ASIMM)	문항 수	신뢰도(α)
교수	전공실기 교수의 가르침 일반 학과목 교수의 가르침 전공실기 교수와의 좋은 관계 일반 학과목교수와의 좋은 관계 전공실기교수의 평가 일반 학과목 교수의 평가	6	.83
동료집단	동료학생들과의 좋은 관계 동료 학생들의 평가 동료 학생들의 협동학습 동료 학생들과의 경쟁 동료(선배)학생들의 조언	5	.77
타고난 환경	긍정적으로 타고난 성격 우수하게 타고난 지능 우수하게 타고난 음악적 재능 부모님의 교육에 대한 지원	4	.80
개인성취능력	스스로의 자신감 성취욕구 정서적 안정 발표능력 작문능력 시간관리 능력 충분한 전공실기 연습 충분한 연습/복습	8	.80
학교	재학 중인 학교의 명성 재학 중인 학교의 도서관 재학 중인 학교의 장학금 제도 재학 중인 학교의 연습실 환경 재학 중인 학교의 교실 환경 재학 중인 학교의 좋은 연주회장 재학 중인 학교가 제공하는 연주기회	7	.82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30	.90

두 번째 부분은 음악대학생들에게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음악대학생으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한 가지를 적고 그 이유를 자유롭게 적도록 한, 두 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 번째 부분은 본 연구 참가자들의 학업성취정도와 연주성취정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성취정도를 1부터 100으로 환산하여 본인이 몇 등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절대척도(Absolute Scale)로 적을 수 있도록 한, 두 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본 연구 참가자들의 개인적 배경(성별, 나이, 출신고교, 학년, 음악교육을 시작한 나이, 학비조달 경로, 경제적 어려움 정도 등)에 관한 7가지 문항들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전 조사연구방법에서는 개인적 배경을 뒤에 두기도 하였으나, 현재 조사연구 방법에서는 개인적 배경을 설문지 맨 뒤에 두도록 권고하고 있기에, 이러한 학계의 흐름을 따라 맨 마지막에 개인적 배경에 관한 질문이 오도록 구성하였다.

5. 결과분석(Data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음악대학생들의 학업성취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PASW Statistics 17.0(SPSS 17.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검사도구인 Academic Success Inventory For Music Majors(ASIMM)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중 음악대학생들의 학업성취요인을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첫 번째 부분의 30개 문항들은 5단계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제작되었기에, 각 요인들에 대한 평균(Mean),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범위(Range) 등의 서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음악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학업성취요인과 그 이유를 직접 서술하도록 구성된 두 개의 주관식 질문들을 통해 모아진 질적 자료들은 질적 연구 분석방법의 하나인 코딩(Coding Segments) 작업을 거쳐 각 참가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후, 비슷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정리(Grouping Category Segments)하여 앞서 측정한 양적자료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의 학업성취도와 연주성취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세 번째 부분에서는 각 성취정도를 1부터 100으로 환산하여 본인이 몇 등 정도에 해당하는 지를 절대척도(Absolute Scale)로 적도록 하였고, 참가자들은 성취정도가 높을수록 적은 점수를 적었다. 이렇게 각 참가자가 기록한 학업성취도와 연주(실기)성취도의 상관관계(Correlational Relationship)를 SPSS 17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배경부분은 두개의 주관식 질문과 5개의 객관식 질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주관식 질문 중 참가자들의 나이와 음악교육을 시작한 나이는 등 간척도(Interval Level) 수준이어서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범위로 측정/분석하였고, 나머지 5개의 객관식 문제들은 빈도수(Frequency)를 측정하여 백분율(%)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음악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결과 분석

다음의 <표 2>는 음악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높은 순서대로 나타낸 것으로 평균의 범위(Range)는 2.78에서 4.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스스로의 자신감(M=4.14; SD=1.02), 성취욕구(M=4.10; SD=.92), 그리고 충분한 전공실기 연습(M=4.05; SD=1.06) 등이 학업성취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수하게 타고난 지능(M=3.05; SD=.90), 작문능력(M=2.83; SD=.90),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도서관(M=2.78; SD=1.03) 등이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 요인 분석(양적응답분석)

요인(Factor)	평균(Mean)	표준편차(SD)
스스로의 자신감	4.14	1.02
성취욕구	4.10	.92
충분한 전공실기 연습	4.05	1.06
정서적 안정	4.03	.92
시간관리 능력	3.83	.93
전공실기 교수의 평가	3.82	.88
전공실기 교수와의 좋은 관계	3.81	1.02
전공실기 교수의 가르침	3.71	1.01
부모님의 교육에 대한 지원	3.64	1.01
긍정적으로 타고난 성격	3.63	.81
동료학생들과의 좋은 관계	3.54	.91
충분한 연습과 복습	3.47	1.04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명성	3.43	.93
일반 학과목 교수와의 좋은 관계	3.42	.89
일반 학과목 교수의 평가	3.40	.83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연습실 환경	3.39	1.24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장학금 제도	3.37	1.09
일반 학과목 교수의 가르침	3.36	.88
우수하게 타고난 음악적 재능	3.35	.97
많은 연주 기회	3.31	1.10
동료(선배) 학생들의 조언	3.31	.86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연주회장	3.26	1.00
동료 학생들과의 경쟁	3.24	.86
동료 학생들과의 협동학습	3.23	.90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교실환경	3.17	1.04
동료 학생들의 평가	3.12	.97
발표능력	3.06	.94
우수하게 타고난 지능	3.05	.90
작문능력	2.83	.90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도서관	2.78	1.03

다음의 <표 3>은 음악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질적 응답을 질적 연구 분석방법의 하나인 코딩 작업을 거쳐 각 참가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후, 비슷한 카테고리리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결과를 요약하면,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성취욕구(n=53), 전공실기교수(n=48), 연주기회(n=22), 연습(n=17), 전공이론수업(n=16) 등을 학업성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라고 지적하였다. 그 외에 소수의견으로 건강(n=1), 지식(n=1), 책(n=1)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3> 학업성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질적응답분류)

요인(Factor)	빈도(f)
성취욕구(개인적 목표/자신감/열정/의지 포함)	53
전공실기교수(교수의 가르침/전문성/평가/관계 포함)	48
연주기회(콩쿨/독창회/독주회/위클리 포함)	22
연습	17
전공이론수업	16
장학금(경제적 영향 포함)	12
동료학생들과의 관계(경쟁/조언/평가 포함)	10
연습실 환경	8
부모님의 기대 및 역할	4
학습 환경 (악기 상태 포함)	3
정서적 안정	2
학교명성	2
음악적 재능	2
건강	1
지식	1
책	1

다음의 <표 4>는 음악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5가지로 구인된 요인(교수, 동료집단, 타고난 환경, 개인성취능력, 학교)별로 구분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으로 평균의 범위는 3.24에서 3.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성취능력(M=3.69; SD=.97)이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M=3.58; SD=.91), 타고난 환경(M=3.41; SD=.92), 동료집단(M=3.28; SD=.9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학교(M=3.24; SD=1.06)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5가지로 구인된 요인들 중 가장 적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 요인 분석(5가지 구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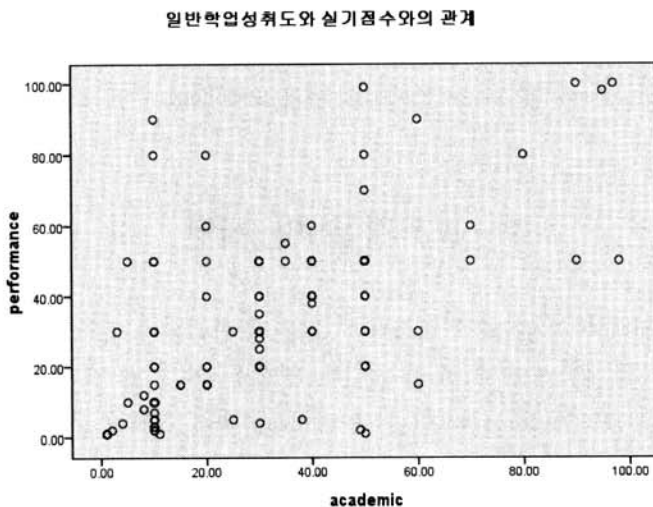
요인(Factor)	평균(Mean)	표준편차(SD)
개인성취능력	3.69	.97
교수	3.58	.91
타고난 환경	3.41	.92
동료집단	3.28	.90
학교	3.24	1.06

2. 음악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전체학과목 등위)와 연주성취(실기 등위)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인 음악대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연주성취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참가자들이 적어놓은 학업성적등수와 실기 성적등수를 분석한 결과, 참가자들의 평균 학업등수는 31.15(SD=22.48; Range=1-98)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실기등수는 33.81(SD=24.81; Range=1-100)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195명의 참가자 중 76명

은 학업등수와 실기등수를 적지 않거나 하나만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결국 학업 등수와 실기등수를 모두 적은 119명이 제시한 자료만이 학업성취와 연주성취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먼저 학업성취와 연주성취의 상관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두 변인 간 산포도(Scatterplot)을 살펴보았다(그림 1).



<그림 1>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실기성취도 간의 산포도

그 결과 특별한 국외자(Outlier)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두 변인을 모두 기재한 119명의 참가자들의 학업성취등수와 실기등수를 Karl Pearson의 단순적률상관계수(Pearson Product Correlation Coefficient)로 측정한 결과, 두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r=.62$,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연주성취 간의 상관관계

		연주성취(실기)	학업성취(일반)
연주성취(실기)	Pearson 상관계수	1	.624**
	유의확률 (2-tailed)		.000
	N	119	119
학업성취(일반)	Pearson 상관계수	.624**	1
	유의확률 (2-tailed)	.000	
	N	119	119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음악전공생들을 대상으로 (N=195) 음악대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Academic Success Inventory For Music Majors(ASIMM)를 통해 측정, 분석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ASIMM은 기존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수, 동료집단, 타고난 환경, 개인성취능력, 학교 등 다섯 가지요인으로 구분하여, 어떤 요인들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가 알아보도록 제작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개인성취능력과 관련된 요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설문지를 통해 나타난 30개의 개별요소들 중 상위 5개를 살펴보면, 스스로의 자신감, 성취욕구, 충분한 전공실기 연습, 정서적 안정, 그리고 시간관리 능력으로 이는 모두 개인성취능력과 연관된 요소들이다. 더구나 질적 응답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성취욕구가 가장 높은 요소인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적 성취의 성공과 실

패는 기본적으로 자신감 등 내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밝힌 아즈무스(Asmus, 198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일반적인 학업성취요인으로 밝혀진 성취욕구(박영신 외, 2004; 김희수, 2004)와 학습전략(이경아 외, 2004) 등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선행연구(김희수, 2004)에서 일반학업성취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 자신감이 본 연구에서는 가장 크게 음악대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앞에서 아즈무스(1986)가 설명한 것과 같이, 학업성취에서 연주가 가장 중요한 음악 대학생들에게는 학생들의 자신감이 연주성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음악대학들은 음악전공생들이 연주상황에서 좀 더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는 교과과정개발과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음악적 재능과 선천적 지능을 포함한 타고난 환경은 상대적으로 음악대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타고난 지능이나 가정적 배경 등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한 학업성취요인이라고 밝힌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였다(Eysenk, 1971; Jencks, et. al., 1971). 특히 다른 분야와 달리 음악적 성취는 타고난 재능이나 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 일반적인 생각과도 다른 결과였다. 실제로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섯 가지 요인 중 타고난 환경은 세 번째로 중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개의 개별 요소에서도 우수하게 타고난 음악적 재능은 19번째로 기록되었고, 타고난 지능은 28번째인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었다. 게다가 참가자들이 직접 서술한 학업성취요소에서도 단 2명만이 음악적 재능이 가장 중요한 학업성취요인이라고 지적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능이 음악적 성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 전공실기 교수들이나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음악대학생들에게 재능보다는 개인적인 성취욕구와 자신감, 그리고 연습을 통한 실력배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셋째, 음악전공생들이 생각하는 연주 성취도(실기등위)와 학업성취도(학

업등위)를 Karl Pearson의 단순적률 상관계수(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로 측정한 결과, 두 변인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2$, $p<.01$). 또한 단순적률 상관계수의 값이 .6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두 변인 간 연관성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성태제, 2010).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음악대학생들이 연주성적과 학업성적 간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연주성적도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음악 대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연주성취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특성상, 본인의 학업성취와 연주(실기)성취 등위를 스스로 적도록 해서 실제 점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결국 무기명으로 학업등수와 실기등수를 적도록 하였기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사실을 근거로 등위를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학업등위가 100명 중 10등이라고 적은 학생이 실기등위는 100명 중 90등이라고 적은 사례와 같이 여러 사례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설명하면, 본 연구가 의도했던 것이 실제점수보다 태도를 측정하려는 것이긴 하지만, 단순히 연주성취와 학업성취의 관련여부(관련이 있다/없다)를 묻기 보다는, 어느 정도 사실을 근거로 한 연주성취와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대한 음악대학생들의 태도를 알아보려하였고, 그 결과 일반적으로 음악대학생들은 연주성취와 학업성취에는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서 설명한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나 환경보다는 개인적 성취요인들이 음악대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음악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나 환경을 탓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개인성취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주력해야하며, 이렇게 노력하는 대학과 학생들은 학업뿐 아니라 연주에서도 우수한 성취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가 각 음악대학들과 교수들에게 음악대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우수한 음악인을 많이 양성하도록 하여, 음악대학의 존재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김경근(1996). 한국 중학생의 학업결정요인. *教育問題研究* 8, 83-103
- 김영화(1993) **한국의 교육불평등: 고등교육팽창의 과정과 결과**. 서울: 교육과학사
- 김소희, 한정선(2001)사이버대학 학습자의 성격유형, 자기주도성, 정보기술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규명.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3(2), 79-106
- 김희수(2004). 대학생들의 자아효능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19, 101-115
- 박명애(1981) 학년별 학업성취에 대한 사회계층요인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외(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사회문제*, 10(3), 37-59
- 성태제(2010).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이경아 외(2004) 학습 성격 유형 및 전공 만족도에 따른 학업성취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07-121
- 한순미(2004). 학습동인변인들과 인지전략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 329-350.
- Asmus, E. P. (1986) Student beliefs about the causes of success and failure in music: A study of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4, 262-278
- Burt, R., & Mills, J. (2006). Taking the plunge: The hopes and fears of students as they begin music college.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23, 51-73.
- Choi, J. H. (2009). Attitudes of international music students from East Asia toward U.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2009). (UMI No. 3377448)

- Coleman, J. S. (1961). *The adolescent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 Dews, B. C. L., & Williams, M. S. (1989). Student musicians' personality styles, stresses, and coping patterns. *Psychology of Music*, 17, 37-47.
- Eysenck, H. J. (1971). *The IQ argument*. Freeport, N.Y.: Library Press.
- Green, W. (2007). Write on or write off?: An exploration of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approaches to essay writing at an Australian university.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26, 329-344.
- Kostaka, M. J. (2002). Practice expectations and attitudes: A survey of college-level music teachers and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 145-154.
- Jencks, et. al. (1971). *Inequality: The a reassessment of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 Jensen, A. (1969). How much can we boost IQ and scholastic achievement? *Harvard Educational Review*, 39, 1-123
- Rosenthal, R. & Jacobson, L. (1966). Teacher's expectancies: Determinants of pupils' IQ gain. *Psychological Reports*, 19, 115-118
- Teachout, D. J.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the teaching effectiveness of music student teachers, *Psychology of Music*, 29, 179-192
- Williams, A., & Thompson, S. (2006). Awareness and incidence of health problems among conservatoire students. *Psychology of Music*, 34, 411-430.
- Woody, R. H. (2000). Learning expressivity in music performance: An exploratory study. *Research Studies in Music Education*, 14, 14-23

ABSTRACT

Academic Success and Performance Achievement of Music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Choi, Jin-H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ived factors that influenced the academic succ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nd performance achievement as music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N=195). The Academic Success Inventory for Music Majors (ASIMM) was developed for investigating the academic succ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nd performance achievement as music maj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personal-effort factors, such as *self-confidence*, *the motivation to be successful*, and *the practice of performance* were perceived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mpacting the academic success of music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while gifted factors, such as *musical talents* and *IQ* were perceived as the least influential factors, relatively. Also, the findings of this study pointed out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academic and performance achievement among the music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r=.62$; $p<.01$). Recommendation and conclusion were provided for music majors in Korean universities.

key words : Academic Success, College Music Majors, Music Education. Curriculum.

투고일: 1월 31일, 심사(수정): 3월 2일(3월20일), 게재 확정일: 4월 4일